

— 건축여행 —

金仁喆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by Kim, In-Choul

일상에서 벗어나 훌쩍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좋기로 말하면 한이없다. 머릿속 가득히 복잡한 구절스러움을 비울 수 있어서 좋다. 제도판위에 휘어지게 구부러진 허리를 펴줄 수 있어서 좋다.

손주름에 끼인 연필가루를 잠시나마 털 수 있어서 좋다. 낯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엿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대가의 흔적과 유명작가의 호흡을 코앞에서 느낄 수 있어 좋다. 예기치 못한 신선한 충격이 도처에 있어서 좋다. 혼자서 하는 발가는 데로의 여행도 좋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럿이 몰려다니는 것도 좋다. 지도나 가이드북을 들고 물어 물어 찾아가는 피곤함도 즐겁지만 가이드가 안내하는 편안한 시찰(?)도 좋다.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깃발들고 다니는 일본인의 바지런함을 애처롭게 보며 여유만만하게 적당히 넘어가는 우리식의 여유도 좋다. 하루종일 빙빙돌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 왔을 때 밤놀이 가자고 바람잡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다.

옛적에 해외구경 한 번하기 위해 온갖공을 드렸던 노력을 생각하면 지금은 간편해서 좋다. 업무, 회의, 세미나, 갖은 핑계를 둘러대고 나온뒤 죄스런 마음으로 구경하던 거북함보다 카메라 둘러매고 휘적휘적 돌아다녀도 누구눈치보지 않아도 되니 편하다. 돌아오는 길의 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로 무거워 킁킁 대다가 라이터, 볼펜에는 이젠 시들해져버려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편찮다. 어렵게 어렵게 나갔다 온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시덥잖은 사진이라도 잔뜩내어 놓으면 자랑스럽던 한때가 있었다. 경력서의 몇줄을 해외시찰(이 명칭엔 항상 의문이 따른다)의 항목이 차지해야 체면이 유지되던 시절도 있었다.

건축주의 해외전문에 주눅들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쓸쓸한 경험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기회가 찾아와 비행기라도 타게되면 싸움터에 나선 병사처럼 잠까지 설치며 하나라도 더보려고 발이 부르트는 것도 모를만큼 돌아다녔던 기억도 있다. 행여나 놓칠세라 눈에 뜨이는대로 셔터를 눌러댔다가 어디서 무엇을 찍은 것인지도 몰라 서너박스의 슬라이드를 정리도 못하고만 경험도 있다.

이번에 다녀본 캐나다와 미국여행은 그래서 그런지 여러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십칠일 동안에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워, 토론토, 보스톤, 뉴해븐, 뉴욕, 워싱턴, 시카고, 달라스, 로스앤젤레스의 열두도시를 돌아오는 빠근한 스케줄이었다. 처음 참가하는 단체여행이라, 개인여행에서 누릴 수 있는 임의로움이 제한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일행에 들기로 마음 먹었다.

국내의 여행사에게 전체의 진행을 맡겨 여행사의 가이드가 인솔하고 현지의 가이드가 안내를 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귀찮은 출입국수속과 가방옮기는 일이 남의 손에 맡겨져 편하고 대절된 교통편이 항상 연결되어 아까운 시간낭비가 없어서 좋다. 여행에 서툰 몇사람의 사소한 착오는 일행의 분위기 속에 에피소드로 녹아버려서 좋다. 이십여명의 모두가 열심이라 보기에도 좋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

하루이틀 지나면서 어딘가 틀어진 듯한 어색함이 느껴진다. 여행사의 관행적인 예정과 우리집단의 특성이 잘맞아들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의 한식식사와 쇼핑안내가 어색하다. 여행사의 가이드에게는 우리 집단의 특성을 설명해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만 상대해 온 현지의 가이드를 설득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단체관광여행이란 것이 어떻게 갖고있는 전문적인 여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어쩔수가 없게 됐다. 우연하게도 스케줄에 잡혀있는 시청, 박물관, 미술관 등의 건물들이 일반적인 관광코스의 건물들과 겹치는 것이 많아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법하다.

사실 그동안의 건축여행은 관광여행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해외여행이 드물었던 시절에 한 번 나가면 일반적이고 전문적이고를 따질 겨를이 없었을 것이고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다보니 쉽게 해결되는 쪽으로 기울고 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건축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이름있는 건물이나

사진으로 익히보았던 건물의 현장확인에 지나지 않는 결과만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몬트리올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세사프디의 하비라트 67과 오타와의 캐나다문명 박물관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것중의 하나다. 박물관의 경우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보았는데 귀국한 뒤 받아본 외국잡지에 특집으로 게재된 것을 보고서야「카디날」이라는 건축가를 알게되었다. 사진과 도면을 현장감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경우는 국제적인 조명을 받지않고 있어서인지 기왕에 알려진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므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사아리넨, 필립존슨, 루이스 칸 등등의 대가와 씨어스타워, 무역센터, 크라이슬러빌딩 등등의 고층건물, 링컨센터나 몇 뮤지엄등 알려진 것 외에는 최근의 잡지정보들을 곁눈기만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정보의 양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광역화되고 다양화된 정보를 일일이 추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세대를 거슬러 올라간 건축들을 주마간산으로 대충보고 미국건축을 보고왔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보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현지사정에 밝은 전문적인 가이드를 구하는 길이다.

뉴욕에서 안내를 해주었던 K 씨나 달라스의 S 씨 경우에서처럼 도시전체의 개괄적 설명과 특정한 건물의 디테일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확실한 그곳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가능하다면 건축과 건축가를 동시에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상첨화이겠지만 거기까지는 욕심을 내지않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만든다면 현지에서의 방향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단체여행에서 건축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기호도 각각인 다중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비싼경비와 아까운시간을 쪼개고 나온 마당에 이도저도아닌 것이 되고 말면 결국 낭비를 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멀게만 느끼고 있던 해외잡지의 최신 이슈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걸음에 확인될 수 있게 되었는데 남의 일이라고 제쳐두지 않을 바에야 좀더 계획적인 관찰을 해야 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기본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언어의 문제나 정보의 소화력은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나 깊이있는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체의 명분을 이용하기가 손쉽게 마련이다.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도 없다. 협회와 같은 단체나 잡지사, 동호인 등의 모임에서 계획을 만들고 멤버를 구성한뒤 여행사와 연결하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봄, 가을 등 정례적인 계획을 세워 각 차례별의 성격을 이번에는 영국의 근대건축, 다음에는 프랑스의 현대건축, 또는 르꼬르뷔지에의 건축과 프랑크 로이드라이트의 건축하는 식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알려 각자의 사정과 기호에 맞는 계획을 선택하도록 하면 충분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은 있으나, 바빠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자신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값싸게, 확실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면 아마도 선착순 모집을 하거나 예약을 받아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기성작가들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파리의 「십대 프로젝트」를 이미 보아둔 사람들도 많겠지만 체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경우는 드물 것이다.

공식적인 행사까지 격상시키지 않더라도 슬그머니 다가서서 기웃거리기 보다 건물의 관리자를 앞세워 보고싶은 곳을 일일이 살피고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이상 좋을 수 없다.

충분히 준비된 자료를 갖고 보아야 할 것과 물어야 할 것을 미리 챙긴뒤 카메라 보다는 스케치북을 들고 여유있게 감상하고, 판단해서 짤막한 평가라도 내린뒤 다음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보기에 좋을 것이다. 이동하는 중이나 저녁시간에 그날의 느낌을 대화로 나누고 돌아와서 해야 할 종합적인 평가회의 계획도 세우고 하느라 개인적인 충족뿐만 아니라 건축계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 질 것으로 상상된다. 여행의 보람중에 큰의미를 갖는 것은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일간이나 십수일간을 같이내면서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친하지 않는 것처럼 이상한게 없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감각도 새로워져서 친구까지 얻게되는 건축여행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